

일렁이는 물결 속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단상

기술기 작가 '다이얼로그:경계인간'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전속으로
내달 6일까지 서울 북촌 휘경재서
차세대 유망작가 7명 중 한명 소개

일렁이는 물결 속 '나의 모습'이 반추된다. 물결의 형태에 따라 반영된 이미지는 저마다 제각각이다. 나의 존재, 위치, 앵글 모두 동일하지만, 흔들리는 물 표면에 비친 '나의 모습'은 사진마다 다르다. 기술기 작가가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작품 '프라이멀 셀피(primal selfie)'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왜곡에 대한 단상이다.

광주 남구 양립동에 있는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는 갤러리 소속 기술기 작가와 함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시리즈 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참여한다.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서울 북촌 휘경재에서 열린다.

기술기 작가는 한국 차세대 유망작가 7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며 랍한, 신고명, 오세성, 윤향로, 이병호, 한석현 작가의 전시가 함께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전국 화랑들의 전속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업 연장선에서 매년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를 열고 있으며 올해 5회차를 맞이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의 기술기 작가를 포함, 전국에서 총 7개 갤러리와 그들의 전속작가를 선정했다.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는 함께 선정된 갤러리 잔느(청주)와 함께 지역 소규모 갤러리로 눈길을 끈다.

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은 경계의 다층성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7인의 작가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융합을 드러낸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서사를 상상하게 한다. 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계와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경계의 확장성과 다층적 의미를 성찰하도록 한다.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소속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기술기 작가는 사진을 주된



기술기 작 '프라이멀 셀피 01'.



기술기 작 '프라이멀 셀피 02'.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제공

매체로 사용하면서, 사진의 재현성과 그 한계에 관한 탐구를 책, 비디오, 사진 설치 형태로 확장한다. 광주에서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의 2023년 전시 '하늘 아래 두 개의 망막과 하나의 렌즈'와 2024년 전시 '우려: 『소년이 온다』를 읽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기술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하늘 배경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프라이멀 셀피(primal selfie)' 시리즈를 선보인다. 동일한 대상과 위치, 앵글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촬영됐으며, 날씨 변화로 인해 물 표면에 비친 하늘과 풍경이 달라진다. 또한, 물결의 형태에 따라 반영된 이미지가 왜곡되며 카메라는 이러한 순간적인 이미지를 포착해 객체화한다.

작품의 한 화면 속에는 '반영', '실재', '투영'의 세 층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먼저 물 표면에 비친 내 모습과 그 배경이 되는 하늘과 주변 풍경이 반영되고, 그다음으로는 물 표면에 미묘하게 떠 있는 나 못가지와 먼지 같은 부유물과 그림자들이

실재한다. 마지막으로 물속을 통해 보이는 흙과 모래, 풀 같은 침전물과 물의 흐름, 그리고 굴절된 빛이 투영된다. 이렇듯 카메라는 물을 사진의 피사체로 삼아, 물의 표면과 그 표면에 반영되는 이미지, 그리고 투명한 물성으로 인해 그 속까지 훤히 드러나는 물의 실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카메라가 포착한 사실적인 이미지는 존재할 수 없는 화면이다. 이는 반사체를 정면에서 촬영하면서도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사진이기 때문이다. 관람객들이 실제 조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저 건너편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해 주시하는 아티스트의 일렁이는 모습과 또 다른 세계다.

정현주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관장은 "갤러리 소속 기술기 작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선정하는 갤러리 우수 전속작가 7인에 선정돼 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참여한다"며 "전시 기간 키아프와 프리즈 두 아트페어가 진행되며 기술기 작가와 함께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가 작가소속화랑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가 올 가을 내부 광장을 둘러보며 식재된 다양한 수목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알록달록 ACC 산책'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CC 제공

가을의 시작... '알록달록 ACC 산책'과 함께

투어 프로그램 24회 운영 수목 설명·만들기 체험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찾아온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ACC의 가을 정취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알록달록 ACC 산책' 투어 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한다.

'알록달록 ACC 산책'에서는 먼저 투어 해설사와 함께 ACC를 걸어보며 다양한 수목의 오색 빛깔과 향기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야외 산책 투어에서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금복서와 털머위, 꽃무릇 등 ACC 곳곳에 물든 가을꽃과 수목들을 살펴보고 광주읍성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야외 산책 투어는 꽃 개화시기 및 수종에 따라 시기별 다른 동선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4~28일까지는 아시아문화광장부터 열린마당까지, 10월 2~30일까지는 지상 시민광원을 중심으로 하늘마당에 식재된 수목을 둘러본다.

이어 가을 향기와 빛깔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날짜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ACC 정원 내 식물과 가을 열매를 조합해 화환 장식(갈란트) 만들기 △다양한 색깔의 매듭과 직조(핸드위빙) 기법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나만의 향막대(인센스 스틱)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돼있다.

야외 산책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에는 120분 정도가 소요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2시, 5시에 각각 진행된다. 참가비는 성인 1만원, 초등학생 5000원이다.

ACC는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회당 참여인원은 20명으로, 11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0일 첫 모집을 시작으로 2주마다 순차별 참가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 정원은 가을이 특히 아름다운 광주 광역시 도심 속 대표 정원이다"면서 "정명한 가을하늘과 함께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알록달록 ACC 산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버스킹 축제... '월출산 아래 콘서트'

24일 밴드 '어디든프로젝트' 공연 지역 주민·협동조합 함께 기획

버스킹 밴드 '어디든프로젝트'가 오는 24일 오후 7시 영암 달마지복지센터 야외무대에서 월출산 아래 콘서트를 연다.

'월출산 아래 콘서트'는 주민들과 지역 협동조합 등이 모여 기획한 공연으로 이번이 두 번째 무대다.

'어디든프로젝트'는 연 100회 이상 거리공연을 펼쳐내고 있는 그룹이다.

보컬 윤승연의 시원한 목소리와 재치 있고 파워풀한 진행, 인디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조성천(기타), 김인권(베이스), 조안(드럼)의 사운드는 장르를 넘어서며 그들만의 음악 세계를 뽐내낸다.

보컬 윤승연 씨는 "월출산 아래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며 "영암주민, 여행자들이 만끽 에너지를 발산하는 멋진 공연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월출산 아래 콘서트는 농림축산식

품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영암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된다. 1만원에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이후 위드석봉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버스킹의 진수로 불리는 뮤지션이 참여한 만큼 지역 청소년들이 공연문화를 제대로 즐겨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월출산을 무대로 하는 감성 가득한 음악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광주대 웹소설 연구팀 WWW, 비평가 인기

시사경제주간지 10회 칼럼 연재

광주대학교 웹소설 창작 교육 연구팀 'WWW'가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와 협력해 진행한 웹소설 비평 연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첫 회에서 다룬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현직 교사의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고영석 평동중학교 국어 교사(문예창

작학과 석사과정)는 이 칼럼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이 교과서에 실린 몇몇 소설보다 학생들에게 더 교육적일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기존 교과서에 실린 소설들이 과거의 사회상을 다루고 있어 현재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현대 청소년들의 욕망과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다음

과 네이버 양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면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와 웹소설창작연구소가 발족한 웹소설 창작 교육 연구팀 'WWW(Welcome to the World of Webnovels)'가 '더스쿠프'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연재에는 총 10여 편의 칼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기호 광주대 웹소설창작연구소장 교수는 "이번 연재를 통해 웹소설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